

가톨릭 전례복을 응용한 현대복식 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대학원 김 현 주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최 현 숙

目 次

I. 서 론	III. 작품디자인 개발 및 제작
II. 이론적 고찰	1. 문양개발
1. 가톨릭 전례복의 정의와 역사	2. 디자인 개발
2. 가톨릭 전례복의 종류	IV. 결 론
3. 가톨릭 전례복의 조형적 특성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종교는 그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과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사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 냈으며 이 생활 양식은 복식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뒤르켐은 “종교는 각 사회에서 각 구성원을 결속시킴으로써 질서와 체계를 기능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행위의 규범을 표현하는 일종의 집합표상이라고 한다¹⁾.” 라고 했다. 가톨릭이라는 공통된 신앙으로 통일되었던 중세는 복식 사상 다른 어느시기 보다는 복식과 종교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음은 자명한 사

실이다.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에게 의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며 의상을 통해 착용자의 인적 사항 등이 전달되어지기도 한다. 특히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피복 재료와 생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옷감의 디자인과 직물 문양 등의 부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러 방면에서 디자인과 문양 개발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것이 점점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세 시대에 그 전성기를 이루었던 가톨릭의 전례복에서 디자인과 문양의 아이디어를 얻고 이것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시켜 그 효과를 판단하여 새로운 직물 문양을 개발하여 아

1) 김광억 외 2인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사, 1985, p 287

름다운 의상을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며 의류 산업의 고급화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종교 복식에서 모티브를 끌어내어 의상 디자인의 다양성과 현대적 디자인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톨릭의 전례복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변천 과정, 전례복의 종류, 형태 및 문양을 문헌, 실물자료, 사진자료 등을 통해 고찰해보고 전례복의 조형적 요소를 현대 복식에 도입하여 디자인 하고자 한다. 또한, 전례복에 표현된 색채와 문양을 응용하여 조형 예술로서의 의상 작품에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현대 복식 디자인에 다양성을 부가하며 표현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현대 남녀복식 디자인작품의 실제 제작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연구에서는 1차 자료인 실물 자료와 2차 자료인 문헌 자료,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가톨릭 전례복의 정의와 역사를 고찰하였다.

둘째, 박물관에 있는 실제 자료와 현재 착용되는 가톨릭 전례복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셋째, 위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가톨릭 전례복을 응용한 문양과 디자인을 개발하여 의상로의 도입 효과를 Computer Simulation을 통하여 검토해 보았다.

넷째, 전례복의 형태와 문양기법을 응용하여 4점의 현대 복식을 디자인하고 이들 작품을 실제 제작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가톨릭 전례복의 정의와 역사

1). 정 의

가톨릭에서 전례(liturgies)란 신자들과 성직자가 함께 드리는 공식적인 의식 전부를 일컫는다. 미사와 세례를 비롯한 성사들이 대표적인 전례복이다²⁾.

전례복은 이러한 전례 의식을 집행하는 사제가 양식에 준하여 교회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으로 전례의 뜻을 더욱 강하게 한다. 전례복은 성스러운 의식을 위하여 사용하며 착용하기 전에 이러한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규제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히 성복(聖服)이라고도 한다. 특별히 전례복(典禮服)을 입는 이유로는 사제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사제 자신도 제사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제복(祭服)이 지니는 위엄과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으며 성직자의 종교적 지위나 서열(序列)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전례복은 어떠한 시대나 문화권에 속하는 기념품적인 의상이나, 장식품으로서가 아닌 성직자의 신에 존경과 전례의 엄숙함과 성스러움을 표시하는 예복인 것이다³⁾.

이런 전례복은 권위와 지도력의 상징이 되었다.

2). 역 사

전례복의 기원은 서기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 결과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가능하게 된 이래 전례의 형식이 풍부하게 전개되면서 부터이다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성직자나 성인은 길이가

2) 성남"구도의 길" 성바로출판사. 1981. p 84

3) 이성은"가톨릭 전례복의 문양. 색채를 도입한 현대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5. p 4

4) 이성은, 전계논문, P. 5.

진 달마티카(dalmatica)를 입었다.

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경에 가서야 성직자의 제복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보다 섬세하게 재단되어 평상복으로부터 다양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클라비의 색과 장식도 다양해지고 옷맵시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소매부리를 넓히고 대신 진동과 가슴둘레를 좁혀 상체가 몸에 맞게 하였다⁵⁾.

비잔틴(Byzantine)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한 로마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융합되고 동양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감각을 띠게 되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자 귀족을 비롯한 상류 계층에까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복장은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또한 문양도 신과 인간과의 신비로운 관계를 찬양하는 성서적 장면이나 전면적인 문양을 사용했다. 동시에 색채도 종교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⁶⁾.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심은 비잔틴 제국의 교육, 문학, 미술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쳐 밝은 색채와 풍부한 장식성은 크리스토포적 관념과 결부되어 비잔틴 예술의 특징을 이루었다.

6세기초에는 사제들은 달마티카와 페놀라를 입고 주교는 그 위에 팔리움(pallium)을 입었으며 부제는 달마티카만을 입게 되었다.

비잔틴 문화가 융성하던 7세기 서유럽 사람들은 문화의 진흥에 노력하면서 그 범주를 동로마 제국에서 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게르만적 요소와 고대 로마, 비잔틴 문화가 융합된 로마네스크(romanesque) 양식이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적 정신적 의미의 표현이 강조되었다.

로마네스크시대의 성직자 복장은 비잔틴시대의 성직자 복장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많은 장식물들을 첨가하여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전례복을

창조하였다. 1095년에서 1292년에 걸쳐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의 탈환을 목적으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8회에 걸쳐 강행한 십자군 운동 결과로 동·서양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동양에서 많은 문물이 유입되었다. 동양으로부터 수입한 비로도와 함께 새로이 발명된 더욱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직물로 만들어진 전례복은 엄숙하고 위엄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⁷⁾.

고딕(Cothic)의 시대의 전례복은 디자이너들과 공예가들이 제작에 참가하여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16세기에는 르네상스의 세속성에 더하여진 바로크, 로코코의 무의미한 장식이 유행하면서 호화로운 표현, 화려한 직물이 등장했다. 정교한 레이스 기법이 발달하여 장백의와 소백의의 장식에 레이스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18, 19세기에는 케수블레와 케이프에 많은 장식이 가해졌다. 19세기 때 재의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20세기가 되면서 다시 길어지고 수(繻)로 장식된 영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고찰한 바와 같이 전례복은 비잔틴 시대에 일상복이 종교적 의미를 띠게 되어 의식복으로 착용되기 시작한 후로 큰 변화 없이, 그 시대의 문화적 경향과 사회체계 내에서의 실정에 맞게 장식품이나 부분적 변화를 제외하면 기본 형태나 양식은 그대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 가톨릭 전례복의 종류

‘사제는 전례 예절 때에는 그 전례 규정에 따라 제의나 수단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모든 사목 활동 때와 공적 회합 및 공식 행사 때에는 성직자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⁸⁾.’ 고 교회 법에 명시되어

5) 고신천 “중세 기독교 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8. p 23

6) 정홍숙 “복식 문화사” 교문사, 1981. P 83

7) 손세의 “가톨릭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 논문, 1976. p 12

8) 이문희 「한국 천주교 사복 지침」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88. p 23

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변천한 가톨릭 전례복은 그 나름대로의 상징적 의미와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신자들에게 보여 주려고 하는 의미도 각각 다르다. 여기에서 전례복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것들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1) 내의(內衣)

(1) 개두포(armict)

개두포는 성(聖) 예복 착용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착용하는 흰색의 장방형의 천으로 어깨에 걸친다⁹⁾. 개두포는 구원의 투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¹⁰⁾. 그리스도가 수난 때 안면을 가리우고 놀림으로 받았음을 상기시키는 표시이다. <그림 1>

(2) 장백의(albe)

일명 튜닉(tunica)라고 하며 개두포 다음에 입는 옷으로 희고 긴 옷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옷으로 어깨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소매가 없는 옷이었는데 로마제국 초기에 넓은 소매를 달아서 입었으며 길이가 짧아졌다가 5세기경 유행이 바뀌어 다시 길어졌고 소매가 좁게 변하였다. 게르만 민족의 짧은 옷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긴 옷이 성직자의 분위기를 나타내므로 오늘날과 같은 형의 장백의가 되기



<그림 1> 개두포



<그림 2> 장백의

까지 계속 착용되었다¹¹⁾.

장백의는 처음에는 면이나 아마포로 만들었으며 10세기부터는 목둘레나 아랫단에 레이스를 달거나 수를 놓았다. 이 옷은 마음의 순결을 상징하고 새로운 생활을 의미한다. 장백의는 수단을 가리기 위해 길고 무릎을 꿇기 위해서 폭도 넓다. 미사, 장엄행렬, 거룩한 축성때에 케수블레(chasuble), 달마티카(dalmatique), 케이프(cape) 아래 입는다¹²⁾. 주름이 풍성하고 길이가 길어 활동에 편하도록 걷어올리기 위해 띠를 사용한다. <그림 2>

(3) 띠(cingulum)

신부가 장백의를 입을 때 장백의가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 허리에 묶는 용도로 쓰였다¹³⁾. 띠의 길이는 3~4미터나 되고 양끝에 술이나 고리를 단다. 이 띠의 의미는 악마와의 투쟁, 참고 견디는 정신을 의미한다. <그림 3>

(4) 중백의(surplice)

장백의를 조금 짧게 변형한 것으로 길이가 다리 중간까지 오며 소매가 넓고 소매 끝과 아랫단에 수가 놓여져 있다. 장백의와는 달리 띠 없이 입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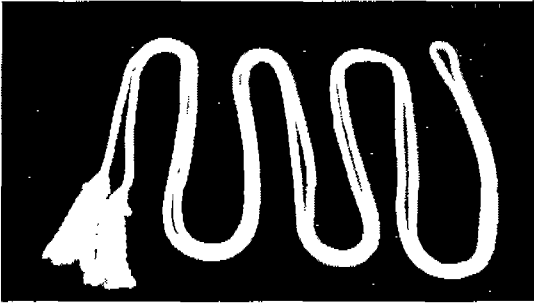
9) 월간 뗏, 동아일보사. 1987 6월호 p. 147

10) 최윤환 「미사해설」 1982. p. 16

11) 이문희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서울 한국 천주교호 중앙협의회, 1988, p. 23.

12) 오춘자, 전계논문, p. 112.

13) 최형탁 “카톨릭 교리 용어집” 계성 출판사 1982. p. 101



〈그림 3〉 띠

다. 중백의는 장백의 대신으로 입을 수 있으나 장백의 위에 제의를 입을 경우에는 장백의 대신 입을 수 없다¹⁴⁾. 14세기에는 이후는 미사때 성직자가 수단 위에 입었다. 〈그림 4〉

2) 외의(外衣)

(1) 제의(chasuble)

제의는 로마인의 고대 페놀라(paenula)에서 유래하였다.

제의는 넓은 의미로 사제가 입는 일체의 의복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미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입는 옷을 일컬으며 장백의를 거의 덮는다. 제의는 작은 집이라는 뜻으로 애덕을 표시하

며, 십자가가 있음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제대에 올라 제사를 거행한다는 뜻이며 앞의 십자가는 사제 자신의 십자가를 뒤의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다¹⁵⁾. 재료는 모직으로 만들었으나 13세기부터는 모든 제의는 비단으로 만들었다. 상징적인 무늬를 간략하게 수를 놓거나 아플리케를 하였다. 〈그림 5〉

(2) 법의(dalmatica)

미사때 부제들이 입는 튜닉계의 옷으로 종교의 식복이 된 것은 4세기 이후에 로마의 교황과 부제의 제복으로 축제를 나타내는 예복이다. 12세기에는 모든 부제들의 고유한 옷이 되었다. 이 옷의 형이 커다란 십자가를 연상 시킴으로써 거룩한 십자가를 의미하고 앞과 뒤에 장식한 줄무늬는 그리스도의 성혈을 상징한다. 〈그림 6〉

(3) 갑바(cope)

특별한 종교 의식 때 주교나 사제가 입는 소매 없는 외투 형태의 긴 옷으로 앞은 터져 있으나 가슴부분에 쇠단추로 죄어지게 되어 있고 뒤에는 납작한 두건이 달려 있거나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다. 사제가 성체 강복과 성사 집행, 장례식등 미사를 제외한 전례시 입는 옷으로 비단으로 되어 있



〈그림 4〉 중백의



〈그림 5〉 제의



〈그림 6〉 법의

14) 「한국 카톨릭 대사전」 한국 카톨릭 대사전 편찬위원회. 1985. p. 1090~1091

15) 최형락, 전계서, p. 327~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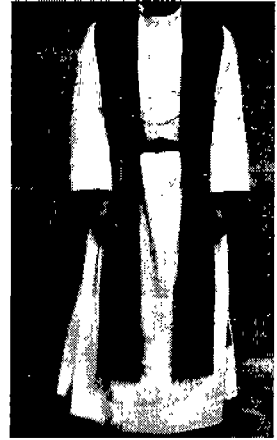
16) 손세희, 전계논문, p. 41.



〈그림 7〉 갑바



〈그림 8〉 수단



〈그림 9〉 영대

고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다¹⁶⁾. 〈그림 7〉

(4) 수단(soutane)

성직자가 전례시에 제의 밑에 입거나 평상시 정복으로 입는 복장으로 길이는 발목까지 오며 몸에 붙지 않고 헐렁하며 로만 칼라이며 단추가 많이 달려 있다.

수단의 색깔은 검은 색으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세속에서는 죽었다는 의미이다. 수단은 성직자의 지위에 따라 그 색깔이 다르다. 사제는 검정색이나 흰색을, 주교는 진홍색, 추기경은 적색을, 교황은 항상 흰옷을 입는다. 과거에는 신부들이 외출 시에도 수단을 입어야 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로만 칼라를 착용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림 8〉

3) 휘장

(1) 팔리움(pallium)

교황과 대주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기 위해 제의 위에 목과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이다. 팔리움은 '주교 임무의 충실성(Plenitude of the pontifical office) 교황 권위에 참여함을 상징하고, 교황청과의 일치 를 보여 주는 외적인 표지이다¹⁷⁾.

(2) 영대(stole)

이 띠는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 성덕의 상징으로 성직자가 자신의 성무 집행의 표시로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좁고 긴 띠이다. 사제와 주교는 가슴 앞에서 평행으로 내려 매고, 부제는 왼편 어깨에서 오른편 허리 밑으로 맨다. 〈그림 9〉

3. 가톨릭 전례복의 조형적 특성

1) 색채

초기에는 전례색이 규정되지 않았고 성경과 관련된 성제에는 기본 뜻으로 백색이 사용되었으나 전례의 성질 및 분위기를 날(日)과 종류에 따라 제의의 색으로 표현하려는 노력, 즉 색깔과 결부시켜 상징하려는 것이 전례색의 기원이다¹⁸⁾.

색채의 의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박해 시대가 끝난 4세기부터이고 그후, 9세기에 와서 검정색, 자주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의 제의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적색에 관해서는 11~12세기까지는 거의 언급이 없었으나 이 색은 가장 오래된 전례 색채의 하나로서 황제의 자

17) 이성훈, 전계논문, p.18.

18) 최윤환, 전계서, p.20

주색 옷에서 전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설이 있을 뿐이다. 여러 가지 색을 주교가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교황 인노첸시오 3세(Innocentio III) 때, 백색, 적색, 녹색, 자색, 흑색을 전례에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¹⁹⁾.

(1) 백색

백색은 묵시록(3,4장)의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이(人)다”에서와 같이 하느님이 친히 입으신 색으로 영광, 결백, 기쁨의 상징이며²⁰⁾ 시기적으로 부활축일과 성모축일, 천사 및 순교자가 아닌 성인, 성녀들의 축일, 성탄절에 사용된다.

(2) 초록색

이는 보편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색으로 연중 주일에 입는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린양들을 푸른 목장으로 인도함을 의미한다.

(3) 적색

적색은 뜨거운 사랑과 피를 상징하는 색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희생과 수난의 표시이며 한편 승리의 색이기도 하다. 적색은 시기적으로 성신강림축일, 사도치명자축일, 십자가현향축일, 성금요일에 사용된다²¹⁾.

(4) 보라색

이 색은 교회에서 회개, 고행의, 색으로 되어 있다. 이 색은 자체가 과히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회개의 뜻을 잘 표현한다. 대림절, 사순절, 대축일, 전후에 사용한다²²⁾.

(5) 장미색

자색의 슬픔과 백색의 기쁨에 대한 중간색에서 대림시기와 사순절의 기간에 성탄과 부활의 서광을 앞두고 좀 기뻐하며 휴식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다. 따라서 그 기쁨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자색과 백색의 중간색을 사용한다²³⁾.

2) 문양

문양이란 첫째, 물건의 겉표면에 어우러진 형상이 나타난 모양을 말하고 둘째, 직물을 비롯한 모든 공예, 건축물 등에 여러가지 경우에 주로 장식을 위해서 사용된 각종 형상을 말한다²⁴⁾.

교회에서의 문양은 장식적인 목적을 배제하더라도 신앙심을 자극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문양을 전례복에 나타나는 5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종류와 상징성 및 주요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표 1.>

(1) 십자가 문양

십자가는 라틴 십자가와 그리스 십자가로 나뉘는데, 라틴 십자가는 횡단목이 종단목 보다 더 길며 그리스 십자가는 네 방향의 길이가 모두 같다. 죽음을 상징하였던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상징’ ‘희생’ ‘하느님의 사랑’ ‘구원’의 뜻을 가진다.

(2) 식물 문양

① 포도나무- 전례복뿐 아니라 교회 미술이나 건축에 끊임없이 사용된 문양이다.

② 밀 이삭- 하느님 자비가 풍성함을 상징하며 예수 자신이 인류의 구속사업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의미이다²⁵⁾.

③ 포도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한다.

④ 백합과 붓꽃- 순결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슬픔의 상징이다.

⑤ 장미- 흰 장미는 예수의 탄생 붉은 장미는

19) 이성은, 전계서, p. 24

20) 카톨릭 용어집, 전계서, p. 328

21) 이성은, 전계논문, p. 26

22) 김은숙, 전계논문, p. 109

23) 최윤환, 전계서, p. 21

24)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 p. 167

25) 이경애(1983) 가톨릭 전례용 성직에 관한연구

〈표 1〉 문양의 종류와 도안

십자가 문양					
	라틴 십자가	고딕의 십자가	동광의 십자가	삼위일체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니주 십자가	피터 십자가	안드레이 십자가	꽃 십자가	에두살렘 십자가
	중의의 십자가	교황 십자가	라틴의 십자가	불타 십자가	멜트 십자가
맞춤글자					
	그리스도	말씀과 요메기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예수인간의 구세주
상징문양					
	다윗의 별	베를렘 별	신비의 별	세례의 별	이웃면십자가
	이웃면십자가	빵과 포도주	성작	테양	촛불
	촛불	신약의 별	노아의 방주	정의의 심판	하느님의 손
식물문양	포도나무				
	밀이삭				
	병합미				
	나무가지, 나무				
동물문양	양				
	비둘기				
	물고기				
	독수리				

예수의 죽음, 그리고 황금 장미는 예수부활의 의

미가 있다.

(3) 동물 문양

① 양- 예수의 부활을 의미한다.

② 비둘기- 성령의 상징이다. 비둘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③ 펠리컨-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④ 수탉- “수탉이 세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²⁶⁾”

베드로의 배반을 상징하고 회개와 뉘우침을 상징한다.

⑤ 물고기- 신앙의 증거자. 오천명을 먹이신 그리스도 성체 성사 예고를 상징한다.

(4) 문자

① R-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문자로 X(CHI)와 P (RHO)로 짜 맞춘 글자 표시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된다²⁷⁾.

② IHS- “인간의 구주 예수” 또는 “나는 고난 당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③ I. N. R. I-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대신하는 약자이다²⁸⁾.

(5) 기타

① 별- ‘주된 공헌 대축일’ 기간을 위한 상징으로 이 기간 중의 여러 교회 장식물에 사용된다.

② 빛- 정의와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낸다.

③ 빵과 포도주- 성찬 예식의 일반적이고 중요한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④ 성작- 그리스도의 고통의 잔을 의미하며 성작은 대체로 천사들이 쥐고 있는 형태로 표현된다²⁹⁾.

⑤ 삼각형- 삼위일체를 나타내며 교차된 삼각형은 여섯 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을 형성하는데

26) 요한 복음 18장 25절, 공동번역

27) 이성은, 전계논문, p. 30

28) 마태오 27장 37절, 공동번역

29) 김대현, 전계논문, Pp. 57

이 별은 세상 창조를 상징한다.

Ⅲ. 작품디자인 및 제작

1. 문양및 디자인 개발

1) 문양 개발

작품제작을 위한 모티브는 가톨릭 전례복에 나타난 십자가 문양이나 식물문양, 상징문자도 문양 개발의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창작 결과물인 문양은 그 문양과 가장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현대 복식 디자인들을 선택하여 TEXTILE CAD에 도입하고 그 중 4점을 선정 한 후에 가상화 작업(Simulation)을 시킴으로서 문양과 의상의 효과적인 조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한 문양과 크기와 색채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면서 각 경우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선택된 의상에 가장 적합한 문양과 색채가 되도록 연구하였다.

그림 10에서 그림 13은 각 문양을 개발한 후 이를 의상에 도입한 Simulation 결과물이다.

문양 자체의 사진은 본고에서는 생략되었다.

문양 I

모티브 I를 응용한 디자인 I은 식물문양과 백합의 조화를 살리면서 간결한 문양을 디자인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개발한 문양을 H-라인 실루엣의 원피스에 Simulation시켰다.

Simulation시 문양의 크기를 조절하여 의상에서의 문양의 조화를 유도하였다. <그림 10>

문양 II

전례복에 많이 사용되는 십자가들을 사용하여 문양을 개발하였다.

성령의 삼위 일체를 나타내는 원안에 그리이스 십자가, 교황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켈트 십자가 등을 그려 넣어 현대적 분위기에 종교적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색상은 원색이 아닌 안정감 있고 따듯한 색으로서 귀여운 이미지의 문양이 되도록 하였다. <그림 11>

문양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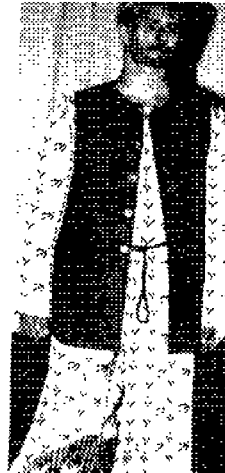
장백의 형태로 H라인 긴 셔츠에 조끼를 입어 현대의 이미지를 부각 시켰다. 남성복에 밀 이삭과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문 비둘기와 포도송이를 함께 디자인한 문양을 Simulation시켰다.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색채는 장백의의 색과 동일한 흰색을 사용하였고 고 두 줄의 보라색 선을 넣음으로써 문양의 형태를 확실히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의상에 Simulation시 수직 방향으로 오게 하여 안정감과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그림 12>

문양 Ⅳ

수단 형태의 긴 코트에 플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원 속에 플 넣고 그 주변을 기억자 모양의 문양을 만들어 현대적 감각을 살렸다.

색채를 보라색에 노란색을 첨가하여 가로 세로로 늘리는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수공예적 질감 표현 효과를 재현했으며 글자 사이에 초록색, 붉은색 계통의 색을 첨가함으로써 바탕의 보라색과 기억자 형태의 파랑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림 13>

2) 디자인 개발

가톨릭 사제복의 실루엣, 색채 및 디테일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실루엣과 색채가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20대에서 30대를 위한 남녀 복식 각각 두 점씩을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가톨릭 전례복의 색채와 문양을 응용하기 위해 디자인 과정에서 화려함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문양의 표현방식은 재의와 갑바에 많이 사용하는 자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사제복의 단순한 실루엣을 살릴 수 있는 문양을 선택하여 디자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전체적으로 H-라인 실루엣을 살려서 몸에 꼭 붙지 않으면서 아래로 뻗어내려 흐르는 듯한 단순미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의상 디자인 I

장백의의 실루엣을 응용하여 여성 복식을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전례색 중 검정을 사용하였다. 직물은

가톨릭 문양중 식물문양이 잘 표현되어 있는 번아웃(burn-out)벨벳을 선택하여 연구자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실루엣을 에이치 라인(H-Line)으로 하여 품에 충분한 여유를 주어서 문양이 잘리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어깨 부분에 끈을 넣어서 소매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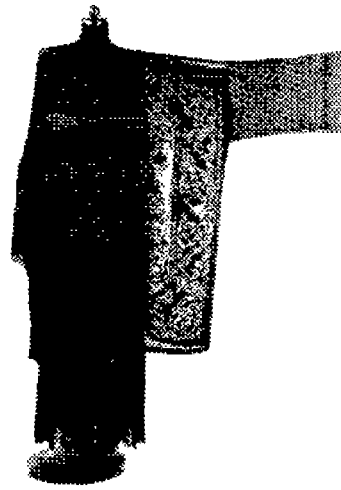
겉옷을 비치는 천을 사용하였으므로 안에 단순한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만들었다. 원피스의 밑단에 레이스를 사용하여 우아한 느낌을 주었으며 이 레이스를 단 부분에 겉옷의 밑단이 오도록 하였다. <그림 14>

의상 디자인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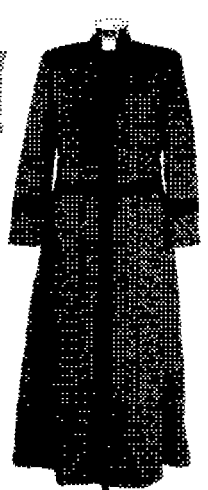
수단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주교의 수단 색상인 자색을 이용하였다. 칼라를 신부의 수단에서 응용한 노란 칼라로 디자인하였으며 소매는 길게 만든 다음 접어 올려서 숄기부분을 박아 주머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디자인은 사제복의 실제 디테일에서 착상을 얻었으며 착용시 실용성도 높일 수 있다. 많은 단추를 달아서 수단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로우 웨이스트의 허리선과 단추가 달린 부분을



<그림 14>



<그림 15>

검정색 바인딩 처리를 하여 정면에서 볼 때 십자가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뒤는 양쪽으로 외주름을 주어서 활동에 편하게 디자인 하였다. <그림 15>

의상 디자인 II

중백의와 법의의 실루엣을 응용하였으며 색상은 기쁨, 환희의 상징인 흰색을 사용하였다.

문양은 십자가 문양과 백합을 단순화시킨 문양으로 십자가의 네 모퉁이에 백합문양을 배치시켰다. 이 한개의 문양을 긴 띠에 연속으로 수를 놓아 의상제작에 사용하였다.

목둘레와 양쪽 가슴위 두 줄로 에이치 라인이 나타나도록 배치하여 바느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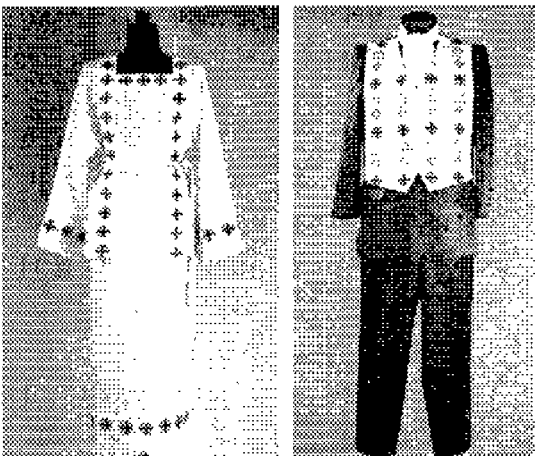
이는 중백의와 법의에 나타난 띠의 모양을 모두 보여 주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치마는 문양을 밑단에만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깔끔함을 강조하였다. <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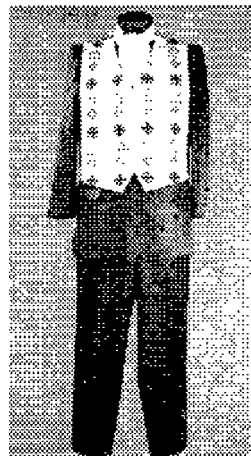
의상 디자인 IV

복고풍의 남자복식에 조끼를 디자인 하여 현대적인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 하였다.

허리가 몸에 맞는 자켓과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팬츠를 기본형으로 하였다. 상의에 테일러드 자켓 포켓을 달았으며 뒷쪽에는 셔츠 포켓을 달



<그림 16>



<그림 17>

아서 전체적으로 복고풍이 느껴지도록 디자인 하였다.

조끼에는 삼위 일체의 삼각형 문양과 십자가 문양을 실크 테이프에 길게 수놓아서 조끼에 덧붙여 바느질하였다.

조끼의 문양이 제의와 영대에서 보여지는 화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림 17>

IV. 결 론

이상으로 가톨릭(catholic)전례복에 관해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문양을 개발하여 현대 의상에 도입함으로써 그 효과를 알아보고 실제 디자인에 따른 의상을 제작함으로써, 현대적인 디자인 개발에 종교 복식의 형태와 이미지를 접목하여 의상 디자인 개발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기독교 시대 즉,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는 세속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제복(祭服)이 없었으나 비잔틴 시대에 와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신권(神權)과 정권(政權)이 결합되면서 발전하였다. 성직자의 복장은 일반복식 중 종교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튜닉, 달마티가, 엘보, 케수블레, 케이프등이 교회에서 특별한 제복으로 적용되어 이후 전례복으로 규정되었다. 작품 제작에는 기본형태인 H실루엣을 사용하였다.

둘째, 가톨릭 전례복에 사용된 색채는 백색, 초록색, 적색, 보라색, 장미색이다.

셋째, 문양은 십자가 문양과 식물, 동물, 기하학적인 문양과 문자 문양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그 문양마다 각각 독자적인 상징성이 부여된다.

넷째, 문양개발에 있어서 전례복에 사용되는 문양을 중심으로 4점을 개발하였는데 기독교 상징 문양을 사용하여 화려한 무늬가 되도록 디자인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서 미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다섯째, 작품제작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문양 I 은 식물문양과 백합문양을 연속무늬로 응용하여 만들고, 이를 에이치라인 실루엣의 원피스에 도입하였다.

문양 II 는 다양한 십자가 문양을 원안에 위치시키고 이들 원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였다. 이 문양을 레깅스에 원피스를 입은 사진에 시뮬레이션 시킴으로 현대적 감각을 살리는데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문양 III 은 장백의 형태의 남성복에 포도문양과 나뭇가지를 문 비둘기와 밀이삭 등 식물문양과 동물문양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현대 남성복의 이미지에 적합함을 볼 수 있었다.

문양 IV 은 상징문자를 응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보라색과 파란색을 사용해 화려하면서도 종교적 원천이 드러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과정 전체를 통하여 CAD PROGRAM(TEARPIT 3D)을 이용함으로써 색상의 미묘한 변화가 주는 차이, 문양의 사이즈 변화의 결과 등을 단독문양을 연속무늬로 개발한 결과 의상에 또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여섯째, 전례복의 디테일, 색채를 응용하여 실용성 있는 현대 남녀복식을 제작하였다.

작품 I 은 전례복에 나타나는 식물문양이 있는 벨벳 번 아웃 직물을 이용하여 장백의 형태의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색상과 실루엣, 레이스, 디테일 및 전체 이미지가 전례복을 연상시킨다.

작품 II 는 수단을 응용한 남자복식으로 디자인하였다. 주교의 수단색인 자색을 응용하고 목, 소매 끝 앞에 검은색으로 바인딩 처리함으로써 현대적 감각을 느끼게 했다. 수단에 사용되는 소매단 형태의 포켓 디테일은 실용적인 면도 더해 준다.

작품 III 은 흰색 실크에 법의 형태로 십자가 문양을 수 넣음으로써 자수의 수공예적 미감을 부가하였다.

작품 IV 는 남자복식의 조끼에 십자가와 삼위일체의 삼각형을 수놓아 화려하게 디자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카톨릭 전례 복의 실루엣이나 문양이 현대복식에 새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문양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직물문양이 현대적 의상 디자인에 이용 가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카톨릭 전례복의 실용적 의상에 응용 가능한 면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으나, 후속 연구로는 art wear에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혀 현대 의상의 실용적 면과 예술적 면을 포괄적으로 논하고 그 결과를 실제 의상 제작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가 카톨릭 전례복의 응용에 국한된 데 반해 수녀복, 수도사의 복장, 성구나 모자이크 및 스테인드 글라스 등 기타 부분에서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와 같은 재조명이 이루어진다면 현대 복식의 다양화에 더욱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참고 문헌

- 광혜원, 의상 사회 심리학(서울: 교문서), 1984
- 김광역 외 2인, 문화인류학 개론(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1985.
- 김경식, 생활 교리(서울: 대건 출판사), 1985
- 김종익, 그리스도의 상징들(서울: 카톨릭 출판사), 1987.
- 류종욱, 복식의장학(서울: 수학사), 1993
- 백영자·유호순 공저, 서양 복식문화사(서울: 경춘사), 1989.
- 세계 미술 대전집.4(서울: 동아 출판사), 1982.
- 세계의 명화 II(서울: 삼성 출판사), 1980.
- 신상복, 서양 복식사(서울: 수학사), 1991.
- 안스웨이버-크렌들, 김수경(역), 중세의 미술(서울: 예경 산업사), 1991.
- 월간 멋, 동아 일보사. 1987. 6월.
- 이기명, 알기 쉬운 미사해설(서울: 카톨릭 출판사), 1994.
- 이기정, 교리, 전례 용어 해석(서울: 카톨릭 출

- 판사), 1988.
- 이문희,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88.
 - 정홍숙, 복식 문화사(서울: 교문사), 1981.
 - 조규화, 복식 미학, (서울: 수학사), 1982.
 - 조르쥬, 나타프, 김정란(역), 상징.기호표지(서울: 형설당), 1987.
 - 차하순, 서양사총론(서울: 탐구당), 1986.
 - 최윤환, 미사 해설, 1982.
 - 최형탁, 카톨릭 교리 용어집.(서울: 계성 출판사), 1982.
 - 한국 카톨릭 대사전, 한국 카톨릭 대사전, 편찬위원회. 1985.
 - 丹野郁 原田二郎, 서양 복식사.(서울: 경춘사), 1982.
 - Brinter, Crone, Christopher John B, H. Wolf R.Lee, 染乗祐外(역): A History of Civilization, 을유 문화사, 1981.
 - Black, J.Anderson & Garland Madge, A History Fashion.N.Y :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80.
 - Ruth P. Rubinstein, Dress Codes. West-view, 1995.
 - E.H. 콰브리치, 백승길, 이종승(역), 서양미술사.(서울: 예경출판사), 1994
 - Herbert Read, 김진욱(역), History of Arts, 범조사, 1981.
 - Marian L. Davis,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역), 복식의 시각디자인(서울: 경춘사), 1990.
 - Rome Vatican Museum III, Greet Museums of the World, 탐구당, 1968.
 - SHELA.PAINE, Embroidered Textiles, Thames and Hudson, London, 1990.
 - イルムガルト=フッタ, 初期キリスト 教美・ヒ“サ”ツテイソ 美術, 西洋美術全史.4(東京:コンピュータ社), 1979.
 - ハンス=ホレンダー, 初期中世美術, 西洋美術全史.5(東京:コンピュータ社), 1979.
 - フロレンス=ドイヒラ, ゴシック美術, 西洋美術全史.7(東京:コンピュータ社), 1979.
 - ヴントラム, ルネッサンス美術, 西洋美術全史.8(株式会社シテイエス大日本), 1978.
 - ジョジ=ザネッキ, ロマネスク美術, 西洋美術全史.6(東京:コンピュータ社), 1979.

참고 논문

- 고신천, “중세 기독교 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 논문, 1988.
- 김대현, “종교 양식에 사용되는 직물의 상징 문양과 색채에 관한 고찰”, 홍익 대학교 산업 미술 대학원, 1983.
- 김명식, “카톨릭 교회의 전례복에 대한 역사적 고찰”, 카톨릭 대학교 학사 학위 논문, 1980
- 김미사, “사제복의 변천 과정과 전례복에 관한 사적 고찰”, 성심 여대 논문집, 제 7장, 1974.
- 김은숙, “기독교 성직자의 제복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가정대학 의류지물연구 8호
- 서기옥, “제의에 관한 소고”, 카톨릭 대학 신학부 학사 학위 논문, 1975.
- 손세의, “기독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 논문, 1976.
- 안성노, “전례복과 상징”, 카톨릭 대학 신학부 학사 논문, 1986.
- 오춘사, 그리스도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 윤숙자, “천주교 제의 성체 소고”, 한양 대학 논문집, Vol.7, 1984.
- 이성은, “가톨릭 전례복의 문양, 색채를 도입한 현대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석사 논문, 1995.

논문개요

종교는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고 인류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서구 문명에 있어서 기독교의 출현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유럽문명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로마시대에 이어 중세 시대에는 사회의 기초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복식에 있어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의복이 일반 서민복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종교복식을 학문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의상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중세를 중심으로 기독교 복식, 특히 중세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로마 가톨릭의 복식에 대하여 논하고, 그 결과를 현대 복식 디자인에 응용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먼저 1차 자료인 실물자료와 2차 자료인 문헌자료를 통하여 가톨릭 복제의 정의와 역사를 고찰하고, 가톨릭 전례복의 색채와 문양을 응용한 현대 의상을 디자인, 제작하였다. 작품은 총 8점으로, 문양을 개발하여 현대복식에 응용한 Computer Simulation 4점과, 위의 두 과정을 통합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톨릭 전례복에 나타난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실물제작 4점이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벽화나 전례복에 표현된 문양들을 응용함으로써 이들 문양이 갖는 조형적 특성과 미적요소들을 현대복식에 도입하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복식미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톨릭 전례복에 나타난 간결한 실루엣과 장식의 화려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에 역사에서 근거하여 재해석된 현대적 스타일로 의상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었다.

세째, 종교적인 모티브도 엄숙한 이미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대복식에 응용됨으로써 세속의 영역에서도 봉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pplication of Catholic Ceremonial Clothes to Modern Fashion Design

Religion has originated with mankind, has developed with mankind, and the appearance of Christianity has made a greater contribution to forming the basis of European civilization than any other event. In the Middle Ages in succession to the Roman Ages, the foundation of society was so laid centering around Christianity that the garments of religion leaders had greatly affected clothes of the common people as well as political economy. In this viewpoint, it has an educational significance to study vestment of the time when Christianity was prevailing value of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examine Catholic ceremonial clothes revolving around the Middle Ages when Christianity had been propagated, and it has treated of the clothes of Roman Catholic to have produced a great effect on the culture of the Middle Age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inquire into the definition and history of Catholic clothes through the first data of the real-thing data from the museums and the second of the literature data and photo samples that show the application of above said elements to modern fashion. Results are eight pieces of work: four pieces of Computer Simulation, and four pieces of the real-thing production to represent the image found in Catholic ceremonial cloth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elicited to be able to satisfy the costume aesthetics that modern society requires, introducing brilliance and esthetic elements for these patterns to have by applying the ones expressed in the ceremonial clothes.

Second, it has been found to be able to make a fashion design with the modern

style supported by history by making a proper mixture of the simple silhouette and a luxurious decoration shown in Catholic ceremonial clothes.

Third, it has been presented to be able to serve in the worldly area if even a religious motive get out of in the area of a solemn image and it is applied to a modern fashion.